

# 조국 딸 '동양대 표창장' 진위 후폭풍

청문회 앞두고 터진 민주당 약재 최 총장 "부인이 논란 무마 부탁" 유시민·김두관 "최 총장에 전화" '파장 최소화 도와달라' 제안 의혹 여당 "총장은 조 후보자 반대 인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5일 '동양대 표창장 논란'이 불거졌다.

조 후보자 딸이 동양대 표창장을 받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시 제출했는데, 동양대 최성해 총장이 발급해 준 적이 없다고 부인한 것이다. 더욱이 최 총장은 조 후보자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신에게 "(정 교수에게) 표창장을 위임했다"는 진술을 부탁 받았다고 주장했다. 여론으로선 약재를 맞은 셈이다.

더욱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김두관 의원이 최 총장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 무마 의혹'까지 일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최 총장이 태극기 부대와 관련 있는, 즉 최 총장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고 나섰다.

최 총장은 이날 새벽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 교수가 자신에게 전화해 (표창장을) 위임해줬다고 얘기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딸의 표창장 발급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던 조 후보자 부인 정 교수가 최 총장에게 관련 의혹을 무마해줄 것을 부탁했다는 게 최 총장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조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유시민 이사장과 김두관 의원 등 여권 인사가 최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파장이 최소화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했다는 일부 보도가 나오면서 민주당을 더욱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성규 위원장이 조국 인사청문 계획서를 채택하는 의사를 투표를 두드리고 있다. 뉴스신

이에 대해 유 이사장은 일부 언론과의 통화에서 전날 최 총장과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러가지 견해들이 많이 나오고 언론에서도 좀 진위가 왔다 갔다 하고 해서 경위 확인차 한 것"이라고 같은 취지의 해명을 했다.

민주당은 최 총장의 잇따른 폭로에 대해 그의 정치적 성향을 들어 폭로 자체의 신뢰성을 문제 삼았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총장이 자기 직인을 찍어내보내는 상상이 특별히

한두장이면 그런 게 있는지 없었는지 구별할 수 있겠지만 총장 이름으로 나가는 상장이 얼마나 많겠나"며 최 총장 주장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또 민주당은 최 총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교회연회가 지난날 낸 '조국(曹國) 후보자님, 조국(祖國)을 위해서, 조국(曹國)하시죠!'라는 제목의 논평도 문제 삼았다. 해당 논평은 조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변인은 "(최 총장은) 조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명했던 분이다. 그래서 조 후보자에 대한 중립적 의견을 갖고 있는 분은 아니라는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 법사위, 조국 청문회 증인 11명 합의

웅동학원·딸 입학 관련자 등 채택 최성해 동양대 총장·가족은 제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가 6일 하기로 합의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또한 조 후보자 딸의 '논문 제1저자' 논란과 관련해 장영표 단국대 교수 등 11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동양대 표창장 논란'과 관련된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가족은 증인에 포함되지 않았다. 법사위 소속 여야 교섭단체 3당 간사는 이날

오전 9시부터 국회에서 만나 증인 채택 논의를 벌여 11명으로 확정했다.

증인으로는 웅동학원과 관련해 김형갑 웅동학원 이사과 안용배 ㈜창강애드 이사, 사모펀드의 후과 관련해 해당 펀드의 핵심 운용자 임모씨와 사모펀드가 투자한 업체 대표이사, 해당 업체가 우회상장 통로로 이용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업체 관계자 등이 포함됐다.

또한 조 후보자의 장녀와 관련해선 장영표 단국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을 비롯해 장녀의 지도교수이자 학과장이었던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논란의 장학금을 지급한 관악회 이사장, 전 한영외교 유학실장, 한국과학기

술연구원 박사 등이다.

여야 간사단 회동에서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증인 포함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 딸이 어머니가 재직 중인 동양대에서 허위 총장 표창장을 받았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최 총장을 반드시 증인 명단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조국 후보자 자질 검증'을 위한 증인이어야 한다', '가족 청문회가 아니지 않냐'며 반대입장을 고수했다.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증인 합의가 안 되면 청문회가 무산될 것 같은 상황"이라며 최 총장을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법사위에서 의결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6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진행됐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 달빛철도 조기 건설 지자체 힘 모은다

14개 지자체와 국회의원 26명 국회서 포럼, 추진 방안 논의

광주시와 대구시 등 14개 경우 지자체가 국회에서 달빛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국회포럼을 개최하고 조기 건설에 힘을 보탠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14개 경우 지자체와 지역 국회의원 26명이 공동으로 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포럼을 하고 전문가들과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

경유 지자체는 광주시와 대구시를 비롯해 전라남도, 경상남도, 담양군, 순창군, 남원시, 장수군, 함양군, 거창군, 함천군, 고령군 등이다.

포럼에는 해당 지역 주민과 학계전문가, 정부 관계자,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다.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국회포럼이 이번이 3번째다. 그동안 경우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영호남 상생공약,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됐다. 올해 국비 5억원을

확보해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하는 등 추진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국회포럼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수립 예정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달빛내륙철도의 신규사업 반영과 사업의 조기현실화를 위한 다양한 추진방안을 논의한다.

이처럼 1천400만명 시·도민의 염원을 담아 6개 광역자치단체와 지역정치가 힘을 모아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고 공동 건의함으로써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교통연구원 이호 박사가 '대구-광주 달빛내륙 철도건설 구축방안'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다. 또 김기혁 계명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분야별 전문가 8명이 패널로 참여하는 토론회도 열린다.

한편, 달빛내륙철도는 광주와 대구 191.6km를 고속화철도(최고 시속 250km)로 연결해 영호남을 1시간대 생활권으로 묶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총사업비가 5조원에 이른다. 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 광주형일자리 '박광태 대표'...시민사회 대립

"든든한 적임자" vs "구시대 인물"

광주형일자리 첫 모델인 자동차공장 합작법인 광주글로벌모터스의 박광태 대표이사 선임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회는 5일 오전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박광태 대표이사 선임으로 사업 성공을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3선 국회의원국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위원장, 민선 광주시장을 역임한 박 대표이사의 선임은 사업 성공의 든든한 적임자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계각층의 인사들의 환영과 지지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전문성과 나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광주

형일자리 사업의 초대 대표이사는 자동차 생산 경험이나 젊음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 대표이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참여자치21과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정의당 광주시당 등으로 구성된 박광태 대표이사 사퇴를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도 같은 날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박 대표이사의 사퇴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박광태 전 시장은 버리고 열목진 구시대 인물일 뿐 아니라 자동차 생산을 위한 초기 설계와 경영의 토대를 구축할 전문성이 결여됐다"며 "노사민정 대타협 리더십을 갖춘 차 전문가를 대표이사로 재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대용기자 ydy2132@srb.co.kr



박광태 대표이사 사퇴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5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박 대표이사의 사퇴를 촉구했다.

### 생활정보 스페셜

광고접수 062)510-4500

- A형 : 83×75
- B형 : 40×75

"쿨러만 가도 삽니다" 좋은 인연 만들겠습니다

**최고가 매입**  
당일이전/즉시 현금 지급

**돈 없이 중고차 구입 가능**  
**할부상당 전액 할부 가능**

차량구입 + 이전비 + 보험료 + 여웃돈

전남권 출장 가능  
광주광역시청 표창대 수여 2019년

010-4609-8976

28년 연속 방문자·선호도 1위

### 광주일자리 사랑방 JOB

**광주 300대 기업 채용관**  
평균 연봉, 매출 등 기업정보 완벽수록

**요식 브랜드 전문관**  
프랜차이즈 정보부터 출퇴근거리 계산까지

보증보험 가입업체 관허 97호 ◆ 20층 장비 보유 ◆

포장이사를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저희 업체는 전 직원이 경력자로서 최상의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님의 물건을 안전하게 운반해 드립니다.

전국어디든 운반 가능 062)522-2424 전남 전지역 061)375-8824

\* 견적은 무료이며 여성장님이 직접 방문 ~ 절대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보증보험 가입업체 - 분실대손시 재정경제부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에 의함 / 관허 124호

### LG 익스프레스

이사 마무리시 스팀청소 서비스

- 선반 · 가구 · 싱크대 · 냉장고 청소
- 블라인드, 버티컬 탈부착 무료
- 2층~22층 사다리 보유
- 전국 체인점망 구축
- 에어컨 이설, 피아노 운반 전문

전국 어디서나 문의 080-925-1234, ☎ 572-8900

나와 가장 가까운 내손안에 JOB

인터넷 + 모바일 + 신문 동시게재

전문직 300대기업 알바 테마채용관

다양한 업종 채용 정보를 한눈에

세분화된 업무검색 검색서비스를 통해 1:1 채용정보 획득!

사랑방 JOB